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51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음 9월 27일) 제192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여기 봐” 14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2층 특별전시실에서 열린 ‘나의 반쪽, 반려동물’ 특별전에서 전시장을 찾은 아이들이 강아지를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국제컨퍼런스 오늘 익산서

프랑스 ‘비타고라’ 와 함께 식품기술 전망 제시
이미지 제고 · 관심기업 투자 촉진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전북도, 익산시가 주최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익산 소재)가 주관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 컨퍼런스를 15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식품전문단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 컨퍼런스는 식품클러스터에 관심있는 국내외 식품 및 연관기업과 유관기관의 글로벌 식품 최신기술을 공유하고 국제 우수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종전까지 서울에서 개최했던 컨퍼런스와는 달리, 올해 컨퍼런스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전북의 산으로 이전하고 개최하는 첫 국제 행사로서의 식품클러스터 산업현장인 익산에서 개최한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6개의 기업지원시설 완공 · 가동 중이며 산업단지 조성 마무리 단계에 있고 많은 입주식품기업이 착공 중으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이미지 제고와 관심기업의 투자 촉진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 식품클러스터 비타고라와 함께 ‘식품기업 등이 활용가능한 식품·음료분야 첨단 기술’이라는 주제로 한-프랑스 식품산업 전문가들이 국내·외 식품기술의 동향과 전망을 제시한다.

비타고라는 실용화 중심의 신화학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많은 다국적 식품기업(네슬레, 다스 등)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비타고라 총괄디렉터인 크리스토프 브레일렛은 비타고라가 보유한 370여개의 회원사와 170여개의 공동 혁신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비타고라의 식품 혁신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프랑스 기업인 솔라티스 대표 ‘파스칼루파드’가 장내미생물을 이용한 자사 제품 개발 사례도 발표한다.

이화여대 이혜성 교수는 ‘감각 및 소비자 과학 기술을 활용한 제품 혁신과 품질관리’를, 한국포장학회 김종경 부회장은 ‘블류가 이끄는 식품 패키징, 식품패키징이 이끄는 블루’라는 주제로 기술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이번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 컨퍼런스의 매력은 프랑스 식품 기업과 국내 식품기업 간의 1:1 비즈니스 미팅시간이 별도로 제공되어 클러스터 입주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울러, 동 컨퍼런스 행사장 내에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제품을 전시하는 부스를 별도 마련해 참석자 대상의 시식 및 판매를 통한 홍보도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장영희 기자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공사 본격 착수

전북도는 전라감영을 아시아 문화심장터의 핵심공간으로 조성해나가기 위해 선화당 등 전라감영 복원 건물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6일 오후 2시에 전라감영지(구 도청사 부지)에서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공사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전라감영 복원 시작을 알리는 문화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행정을 총괄했던 옛 도청사 건물이 준공된 지 60여년 만에 조선시대 전라남북도 및 제주도를 관할하던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문화기공식은 식전행사(祝願)와 공식행사(告天), 식후행사(團結)로 구성, 흥겨운 설장고 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전통의례 절차에 따라 고유제가 봉행, 이후 경과보고 및 전라감영의 역사와 복원사업에 대한 간략한

도, 내일 문화기공식 개최
84억원 투입 2019년 준공
선화당 등 핵심 부분복원

설명도 이어진다.

고유제는 조선시대 전라감영 복원을 추진하는 출발점에서 그 시작을 알리고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에서 주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을 짓기 전에 지경돌로 그 터를 단단하게 다지는 의례와 놀이인 지경다기지를 퍼포먼스화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라감영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에서 전라감영 공간의 변화에 따른

각 건물별 위치, 시대에 따라 변화는 건물의 형태 등 전라감영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현안 내용에 대해 논의, 최종 논의된 사항을 전북도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했다.

복원공사는 총사업비 84억원으로 오는 2019년 12월까지 진행되며, 복원대상은 선화당, 내아, 내아행랑, 관공각, 연신당, 내삼문, 외행랑 등 전라감영 핵심건물 7동이 공사에 포함되어 복원될 예정이다.

이울러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통일신라시대부터 일제강점기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흔적을 어떻게 조성하여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여 복원될 건물 활용의 구체적인 방향과 콘셉트에 대해서는 향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논의를 거쳐 박제

된 공간이 아닌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전라감영 복원 공사와 함께 전라감영의 완전 복원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최첨단 ICT기술과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라감영 일원은 조선시대 감영을 주제로 콘텐츠 체험 공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며 역사복원과 더불어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등이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라감영 복원이 과거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었던 전주의 옛 영광을 복원하고 더 큰 자긍심과 미래의 희망이 담긴 핵심 공간으로 조성되기 위해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함께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내년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정부가 세정(稅政)에 큰 획을 그어줄 종교인 과세를 유예없이 시행하도록 도입 초기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유예를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열린 개신교 측과의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고 차관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하는 개신교 측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간 개신교가 새로운 과세 시행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지 못한 좋은 의견을 많이 줬다”며 “정부도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이번 과세로 인해 종교인 여러분의 자긍심에 상처주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규정을 잘못 지켰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실질적으로 시범 시행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처벌 유예도 있을 수 있고 제도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전북도시가스는 깨끗하고 편리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 전주매일 창간

깨끗한 환경 고객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북도시가스는 다음세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천연가스는 환경을 지킵니다.

전북도시가스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행복한 현재,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세계질 깨끗한 “천연가스”로 최고의 안전과 깨끗한 미래를 고객 여러분께 돌려 드리겠습니다.

고객을 위한 도시가스 기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감 신청 안내
전북도시가스(주)에서는 사회경제적대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에 요금을 감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시가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240-7755-6)

전북도시가스(주)
전북 전주시 익산구 광재로 31 / 전화 063)240-7700
www.jbcitygas.co.kr